



첫 '탄소 문화상' 대상 수상

“인간과 자연은

균형점 갖고 공존 해야”

글 김창덕 동아일보 기자 drake007@donga.com

박이문 미국 시몬스대 명예교수(83)와는 초면이 아니었다. ‘제자’의 범위를 아주 넓게 해석한다면 필자도 그의 수많은 제자 중 하나다. 대학 초년생 시절이니 1994년 교양학부의 철학수업이었다. 그의 수업은 언제나 질문으로 시작했다. 20명 내외의 학생들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 애써봤지만, 별 소득을 얻진 못했다. 그러면 박 교수가 말하는 것이었다. “답은 없지요.” 그러곤 왜 답이 없는지, 그럼에도 왜 우린 답을 찾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했다.

스승도 18년 만에 만난 제자를 무척이나 반겼다. 그저 옛 수업의 한 장면을 떠올렸을 뿐인데 “그랬지, 그랬지” 하며 맞장구를 쳐주었고, “집이 가까우니 꼭 다시 놀러 오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의 인생은, 짐작컨대, 대부분 책을 쓰거나 읽는데 쓰였을 것이다. 머릿속을 메웠던 질문과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100편이 넘는 저서와 논문으로 남았다. 그런 그가 몇 달째 책을 가까이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탓이다. 책을 대신할 무언가가 그에겐 절실한 게 아닐까.

박 교수와의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24일과 26일 두 차례 이뤄졌다. 계기는 최근 대한화학회(회장 이덕환)로부터 받은 ‘탄소문화상 대상’ 수상이었다. ‘더불어 사는 인간과 자연’(미다스북스·2001년) ‘동지의 철학’(생각의 나무·2010년)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통해 현대 과학기술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개선했다는 게 선정 배경이었다. 박 교수의 체력 문제 때문에 인터뷰 시간은 각각 1시간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그의 메시지는 명료했다. 아래 문답은 두 차례의 인터뷰 내용을 하나로 재구성한 것이다.

Q. 과학자가 제정한 상을 받으셨습니다.

A. 그래서 더 기쁜 것이죠. 현대에는 과학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현상이 사실은 인문학적인 것입니다. 과학적인 사실도 인문학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 과학과 인문학이 연결돼 있다는 말인가요?

A. 그렇죠. 과학과 인문학은 차원은 다른 것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밑바닥은 모두 연결돼 있어요. 밑바닥은 하납니다.

Q.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 공과대학에서 강의를 한 것도 그 때문인가요?

A.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웃음) 당시 포항공대(지금의 포스텍)의 김호길 총장이 도와달라고 했죠. 저도 한국에서 은퇴했으면 좋겠다는 막연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박 교수는 1964년 프랑스 소르본대에서 문학박사를, 1970년엔 미국 남가주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20여 년간 해외강단에 섰던 ‘시대의 지성’은 1991년 한국에 돌아왔다. 그때 동지를 튼 곳이 설립 5년째였던 포항공대(지금의 포스텍)였다. 일찍부터 과학과 철학의 연결고리에 대해 탐구해왔던 그다운 선택이었다.)

Q. 시상식(지난해 12월 17일) 당일 과학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A.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이것 때문에 말도 잘 못했지 뭐(웃음). 이번 상은 나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커요. 과학자들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과학과 인문학이 다르지 않고 서로 연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타진한 것이니까요.

Q. 이번 탄소문화상 수상의 배경에는 '더불어 사는 인간과 자연'이 결정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A. 정년퇴임한 뒤인 2001년에 나온 책입니다. 물론 원고는 퇴임 전에 꾸준히 썼던 것이고요. 인류는 과학문명에 의해 발전했고, 지금은 무척 살기가 좋아졌어요. 그러나 그 대가로 치러야 할 게 생겼습니다. 그게 생태계의 문제죠. 인류는 이제껏 오만하게 자연을, 나아가 우주를 지배하려고 했어요. 물론 인간에게는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재능을 무한히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생태중심주의입니다.

Q. 인간중심적이 아닌 생태학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인간은 동물과 다른가요.

A. 물론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그러나 '절대' 다른 건 아니에요. 비록 인간에겐 몇몇 특별한 점이 발달돼 있지만, 동물과 '절대' 다른 건 아니죠. 동물도 다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Q. 생태학적 관점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A.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꺾이기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더군요. 인간의 오만함은 생태계와 공존하는 대신 지배하려 하고 있었죠. 환경오염이란 것도 결국은 생태계와의 밸런스를 깨뜨림으로써 얻은 결과입니다. 다른 무엇의 잘못도 아닌 인간의 잘못이죠. 대한화학회가 탄소문화상을 제정한 것도 인간의 과오를 탄소에 전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압니다.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탄소라는 희생양을 만들어낸 것이죠.

Q. 생태학적 관점은 본인의 허무주의와도 연결되는 것입니까.

A. 물론이죠. 인간은 어차피 일생을 살다 죽을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죽을 때 되면 죽고, 지구가 망한다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허무한 것이죠. 허무하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라, 살아 있을 때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잘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과 자연이 균형점을 갖고 어울린다는 의미입니다.

(박 교수는 스스로 '허무주의자'라 칭한다. 중학교 시절 '허무론'을 써갔는데 미리 읽어 본 선생님이 발표를 만류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Q. 허무주의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A. 허무주의자들은 '모든 것은 결국 의미가 없다, 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Q. 젊은 시절과 황혼기에 접어들어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A. 그땐 열정이 있었죠. 뭐든 다 알려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허무주의잡니다. 허무한 허무주의자(웃음).

Q. 젊은 시절 찾고자 했던 답은 찾았습니까.

A. 물론 답은 없죠.

Q. 혹시 지금도 찾고 계신 중인가요.

A. 지금은 ‘답이 없다’는 답이 나온 거죠. 진정한 허무주의자는 이를 태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절망하지 않죠. 오죽하면 제목이 ‘행복한 허무주의자의 열정’(미다스북스·2005년)으로 했겠습니까.

Q. 지난 대선에서 세대, 지역, 계층갈등 등 한국사회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허무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서로의 진영을 헐뜯는 건 부질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A. 어떤 이슈에 대해선 상이한 의견이 나오기 마련이죠. 세상엔 갈등이 있어야 발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부드럽게 해소돼야지 지나치게 대립할 경우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려워집니다.

Q. 갈등을 봉합할 방법이 있을까요.

A.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일관된 신념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려 하죠. 그러나 그 신념이 정당한 것이냐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애매할 때가 많죠. 그러니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Q.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말씀이군요.

A. 그렇죠. 남과 부딪쳤을 때는 늘 자기반성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기반성을 하다 보면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바로잡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Q. 가장 크게 부각된 세대 갈등은 어떻게 보시나요.

A. 뭔가 경험했던 사람들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갈등이죠. 경험했다고 무조건 옳지 않을 뿐더러, 경험하지 않았다고 세상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반성을 하지 않으면 절대 상대를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박 교수는 한국나이로 쉰셋이 돼서야 결혼했다. 젊은 시절 결혼을 생각지 않았던 이유를 묻자 그는 “일하는데 방해가 될까봐”라고 간단히 대답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결혼한 게 참 다행이라고 했다. “결혼을 했다”는 말 대신 “결혼을 태연히 받아들였다”는 이 노학자의 말이 가슴 속을 파고들었다. 삶의 지혜는 ‘찾아내는 것’이 아닌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걸 그는 그렇게 에둘러 표현하고 있었다. **ST**